

## ■ 영상택배 시즌2 - 우정(牛鼎) 이야기



국가제례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진 소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제사용 그릇, **우정**

2021년 첫 번째 영상택배는 신축년을 맞아 소와 관련된 유물인 우정(牛鼎)이야기입니다. 우정은 국립고궁박물관 상설전시실 지하층 왕실의례실에 전시된 유물로 삶은 소고기를 제례 장소까지 옮기는데 사용한 준비용 제기(祭器)입니다. 세 개의 발을 소의 머리와 발굽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뚜껑에는 '牛'자를 새겼습니다. 국가제례에서 익힌 고기를 신에게 대접하는 절차는 국왕이 친히 제사를 지낼 때에만 진행되는 신성한 과정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 연구원 회원 소식

### 황지호 회원 전북일보 신춘문예 <소설> 부문 당선

그날 모악산 산행이 떠오릅니다. 안개가 진했던 늦가을이었습니다. 안개는 곧 눈개로 변해 나아갈 길을 자주 확인해야 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으나 불안감이 밀려왔고, 불안감은 두려움에 닿았습니다. 정상을 넘기 위해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래 걸었으나 정상은 나오지 않았고 도착한 곳은 낯선 마을이었습니다. 길을 잃었던 것이지요. 갈림길에서 방향을 틀었나 봅니다. 자주 다니던 산이니 길을 잃기 쉽지 않은데, 스스로 의지를 꺾고 벗어났을 겁니다. 제 글의 행로, 삶의 행적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 다. 막연했고, 두려웠으며, 회피했습니다. 당선 통보를 받으니 길에서 벗어나 낯선 것을 기뻐했던 순간들, 새로운 길을 걸어본 경험들이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사람들 삶 속에 결이 비슷한 감정과 인식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한 것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심사위원님들의 선택은 그럭저럭 걸을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산행을 시작해보라는 권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산 들머리에 섰습니다. 문장의 능선에서 세상과 역사, 사람들의 삶과 내면을 오래 바라보겠습니다.



황지호 작가

글을 가르쳐 주신 이희중 선생님, 강준만 교수님, 세상을 보는 관점을 갖게 해주신 변주승 교수님,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주신 이강식 선생님, 제 삶과 글의 첫 독자인 윤공 스님과 마지막 독자인 아내 윤은영 님 감사합니다. 서울·장흥 식구들과 재선이를 비롯한 친구들, 물빛학원 동료들과 제자들, 흐름출판사 한명수 사장님 감사합니다. 황원지와 황정현에게도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황지호 작가는 전북 장수군 장수읍 동촌리에서 태어나 자랐다. '우수출판콘텐츠제작지원사업'에 선정됐고 <월간 전원생활>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 황지호 회원 당선 소감(전북일보 2020. 12. 31)

우리 연구원 황지호 회원(전주 물빛학원 원장)이 2021년 전북일보 신춘문예 소설부문에 당선되었습니다. 단편 소설 <귀가(歸家)>는 제목처럼 흠으로 돌아가는 집과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황지호 회원에게 축하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 이원록으로 태어나 이육사로 떠난 사람(1944. 1. 16)

글줄개나 읽고 썼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이원록이라는 이름에는 고개를 가웃거린다. 그러나 그가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다 얻은 수인(囚人) 번호를 이야기하면 모두가 고개를 고덕이게 된다.

그는 시인이면서 특공훈련까지 받은 명사수였고 독립투쟁의 와중에 모두 열일곱 차례나 투옥되었고 생의 마지막 날을 열일곱 번째로 끌려갔던 베이징 주재 일본총영사관 교도소에서 보냈다.

창여 장진홍이 주도한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사건에 연루되어 그의 나이 스물 셋에 대구형무소에서 1년 7개월간 복역하고 석방되었으나 기실 그는 이 사건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다. 최종 재판에서도 "혐의없음"으로 석방되었다.

그 뒤 중외일보 대구지국 기자로 근무하며 1930년 1월에 조선일보에 이활이라는 필명으로 첫 시 <말>을 발표했다. 광주학생운동의 영향으로 일어난 이른바 <대구격문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어 다시 옥살이를 하게 된다. 출옥 후 중국으로 건너가 의열단원 윤세주의 권유로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1기생으로 입교하게 된다. 이곳에서 폭탄·탄약·뇌관의 제조법과 투척법 그리고 피신법·변장법·무기운반법 등을 배웠으며 권총 사격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1933년 4월 학교 졸업 후 7월경 귀국하여, 육사라는 필명으로 시 <황혼(黃昏)>을 《신조선(新朝鮮)》에 발표하여 시단에 데뷔했다. 이 시기 중국에서 만났던 루쉰의 소설 <고향(故郷)>을 번역하기도 했다. 그러나 1934년 3월 의열단 관련자로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출신자라는 이유로 검거,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았으며 7월에야 기소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다.



1934년 6월 20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촬영된 사진

출옥과 함께 당시 안동경찰서에 보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일사상, 민족자결, 항상 조선의 독립을 몽상하고 암암리에 주의의 선전을 할 염려가 있었음 . 또 그 무렵은 민족공산주의로 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의 성질로 보아서 개전의 정을 인정하기 어려움"

대구형무소에서 첫 번째 감옥살이 할 때 받은 수인번호 264에서 그의 이름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정설로 되어 있지만 그의 속내는 여러 번 바뀌었다고 전해진다. 처음에는 일제 식민지배를 받던 조국이 겪던 "치욕의 역사를 도륙낸다"는 의미로 육사(戮史)를 쓰려했는데 "매우 거칠고 사나우며 너무 노골적이니 역사를 평평한 육지로 만든다는 육사(陸史)라는 이름을 쓰라"는 집안어른 이영우의 권고로 육자를 '물' '륙'자로 고쳐 육사(陸史)로 순화했다고 한다.



그는 이후 중국에서 활동하던 중 1943년 7월에 모친과 형의 소상(小祥)에 참여하기 위해 귀국했다. 고향마을인 원촌과 안동풍산에서 일박하고 상경한 뒤, 동대문 형사대와 헌병대에 검거된다. 부인 안일양은 7월에 동대문 경찰서에서 마지막으로 육사를 보았다고 전한다. 20여일 동안 구금생활을 치르다가 "딸 옥비에게 전에 없이 심각한 표정으로 딸의 볼을 얼굴에 대고, 손을 꼭 쥐고는 '아빠 갔다 오마'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20여일 후 베이징으로 끌려갔다. 마지막 길이었다.

1944년 1월 16일 백마 타고 온 초인을 끝내 만나지 못하고 육사가 우리 곁을 떠났다.